답답하십니까?

효자제일교회 전도사·홍 순관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시매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이 임하옵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빌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저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소에 누웠으니 일어나 네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소용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비 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개역, 누가복음 11:1~13]

우리의 삶이 날마다 기쁨이 넘치고 행복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삶에는 때때로 답답하고 짜증나는 일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십니까? “아이고 내 팔자야!” 하는 말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쓰지 말아야 합니다. 팔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팔자 타령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팔자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굳이 있다면 팔자 고친 사람입니다. 원래 여러분들이 타고 났던 팔자가 엉망진창일지 몰라도 예수 믿는 사람은 팔자가 바뀐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이고 내 팔자야!” 이런 말은 할 수 없습니다.

혹시 또 “내가 전생에 뭘 죄가 많아서 하는 일마다...” 이렇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전생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는 사람에게 전생이 어디 있으며 조상의 죄는 무슨 말입니까? “가계에 흐르는 저주가 어땡고...” 이런 말은 예수 믿는 우리 입에서 결코 나올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답답한 일이 생길 때, 이런 말 대신 우리 입에서 무슨 말이 나와야 하겠습니까?

본문을 보시면 주기도문이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짝막한 기도가 나옵니다. 주기도문을 외우실 때마다 삭제했으면 싶은 게 없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같이...’ 이 구절은 좀 빼고 싶죠? 어떤 분이 한 20년 동안 주기도문 외울 때마다 이 구절에는 입을 다물었답니다. 형제간에 원수진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주기도문 외울 때마다 이 부분만 건너뛰는 겁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자신있게 이 부분을 암송하시는 분은 다른 사람의 죄를 아주 잘 용서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생각없이 외우시거나 둘 중의 하나일 겁니다.

이 말을 깊이 묵상하면서 외우면 걸릴 때가 참 많습니다. 뻗으면 싫을 때가 있죠? 그러나 그렇더라도 이 말을 가슴에 새기면서 가능한한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해 주리라고 마음먹는 것 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 구절이 찢릴 때마다 “주님 가르쳐 주신 대로 어떻게든 해보겠습니다.”라고 마음먹고, 시도하면서 어렵더라도 빼먹지 마십시오. 빼고 싶더라도 빼지 말고 꼬박꼬박 외우십시오. 그러면서 가능하면 내게 죄 지은 모든 자를 용서할 수 있는 수준까지 나아가야지요.

빼는 대신에 수정했으면 좋겠다 싶은 것 없습니까? 일용할 양식을 어떻게 수정했으면 좋겠습니까? ‘평생 먹을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하면 매일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평생 먹을 양식을 주옵소서’ 그렇게 바꿔볼 생각이 전혀 안 들었던 말입니까? 욕심이 없는 겁니까? 아니면 아무 생각 없이 외우는 겁니까? 이왕 주실 것이면 매일 매일 조금씩 주실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욕심이 안 드신단 말이죠? 우리 효자제일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만으로 만족하고, 잘 살고 계신다는 의미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습니다. 반드시 하루 분만 거두

라고 하셨는데 이틀 분을 거두었더니 썩고 냄새가 났더라고 합니다. 매일의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과 마찬가지로입니다. 육체를 위해서도 매일의 양식이 필요하듯이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한꺼번에 왕창 읽어버리고 한 며칠 푹 쉬는 것도 곤란하고, 기분 내키면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출석하다가 기분이 이상하면 한참 푹 쉬고...? 아니요. 평생토록 꼬박꼬박 밥먹듯이, 말씀 읽는 것, 기도하는 것, 예배 참석하는 것을 꾸준하게 계속해야 하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는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일용할 양식보다 한꺼번에 왕창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은 우리 마음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주기도문을 외울 때 조심해야 할 부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잘 안 들리지만 가끔 들리시는 분이 있습니다. '나라에 임하옵시며'라고 외우는 분이 가끔 있는데 자세히 보십시오. '나라이 임하옵시며'입니다. 이것은 옛날 표현이라서 그렇습니다. 옛말로 '나라이 임하옵시며'라는 말씀은 현대말로 하면 '나라가 임하옵시며'입니다. '나라이'라는 말이 틀리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본문 중에 조금 이상한 말이 있죠? 5절 제일 끝에 보세요.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빌리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 '빌리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빌려온다'는 뜻이 아니고 '빌려준다'란 뜻입니다. 이게 표준말인데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잘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빌리라'는 말은 '빌려다오'라는 뜻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무엇을 위하여서 기도할까요?" 아니면 "어떻게 기도할까요?" 이런 질문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는지 한번 봅시다. 2~4절도 답변이 되지만 그 뒤에 이어 나온 5~13절까지도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어느 쪽에 더 무게가 있습니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더라고 알고 계시죠? 그러나 주기도문은 세 절에 지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은 그 뒤에도 길다랗게 붙어 있습니다. 길이로 따져도 뒤쪽이 훨씬 더 길입니다. 예수님의 답변, 즉 5~13절까지를 아주 간단하게 요약하면 어떻게 됩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걸 전부 다른 말로 하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까요?" 했더니 "탄소리 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기도할까요?"라고 묻지 말고 기도하란 얘깁니다.

공부 안 하는 아이들이 "선생님, 어떻게 영어를 잘 할 수 있을까요?"라고 열심히 물어요. 영어공부 잘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우리나라에서 영어 잘 하는 방법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떼돈 벌기는 일도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영어를 잘 할 수 있습니까?" 자꾸 묻는데 정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열심히 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 기도할까요? 어떻게 기도할까요? 예수님의 답변은 '기도하라'는 겁니다. 거기 예다 한마디 더 붙인다면 강경하듯이 기도하라는 겁니다.

꼭 공부 안 하는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 할 수 있느냐고 자꾸만 묻는데 정답은 '열심히 공부하라'입니다. 하다 보면 요령도 생기고 길도 보이죠. 선생님이 도와 줄 수 있는 방법이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닙니다. 열심히 하면서 스스로 길을 찾는 학생들에게는 스스로 길이 열립니다. 열심히 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방법, 좋은 교재라도 소용이 없습니다. "어떻게 기도할까요, 무엇을 기도할까요?"라고 물었더니 그런 소리 자꾸 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멋진 기도를 남긴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멋지지 않은 기도도 많습니다. 이삭이 하나님께 "하나님 내겐 왜 자식이 없습니까?"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꼭 기도해야 될 중요한 사실 맞죠? 아내가 아기를 갖게 되자 이삭이 또 기도를 했습니다. 그 기도 내용이 뭐니까? "아이가 뱃속에서 싸우는데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런 기도죠. 야곱도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합니다. 대체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압박 강가에서 답답함을 못 이겨 가슴을 쥐어 뜯고 헤매었는지 모릅니다. 도대체 어떻게 될 지 길을 알지 못하는 그 상태에서 가슴 졸이고 있었을 겁니다. 오로지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 나 이제 형님을 만나야 되는데 우리 형님이 우리 가족을 다 죽일지 모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기도였습니다. 멋진 기도입니까? 아니면 좀 인간적인 기도라고 생각이 됩니까? 인간적이라는 느낌이 많이 들죠? 여러분, 너무 멋진 기도를 하려고 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진심을 토하는 기도가 좋은 기도입니다.

저는 저의 아버지를 보면서 안타깝다 하는 생각이 종종 들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먹을 양식을 위해 평생 기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나이가 많이 드셔서 하신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내 먹고 입을 것을 위해서 기도를 하겠냐?” 그러면 도대체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아주 고상한 기도만 하셨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풍성하게 되고... 그런 기도만 하셨던 거죠. 먹을 것, 입을 것을 위해서 기도를 하려니까 어쩐지 하나님 앞에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아버지가 평생 고생을 얼마나 하셨는지 모릅니다. 속으로 저 혼자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러니까 평생 먹는 것 때문에 그렇게 고생을 하셨지요.” 우리 아버지는 기도를 좀 고상하고 멋지게만 하고 싶어했습니다. 돈이 없어서 그렇게 고생하시면서... 힘들면 힘들다고, 심지어 욕이라도 하고 싶으면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앞에 가식없는 진실된 모습으로 엎드려야 합니다.

어제 저녁 성경공부 모임에서 재미난 얘기를 들었습니다. 부인이 밤중에 일어나서 교회 잘 안 다니는 남편의 손을 잡고 기도를 하려니까 남편이 대뜸 한다는 소리가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 하더라고요. 국가를 위해서 앞에 생각된 말은 뭘까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그 말은 결국 기도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남편이 한 말을 정확하게 표현하면 “기도하려거든 나를 위해서 하지 말고 적어도 국가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하라”지만 이 말은 기도하지 말란 뜻입니다. 소용없는 것 왜 하나는 내용이 포함된 얘가지요. 기도할 때 거창하고, 위대한 것만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하지 말고 우선 내게 소용되는 그것부터 기도를 하는 게 좋습니다. 우린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가 될까요? 그것을 생각하다가 기도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기도를 내가 바르게 했느냐 잘못했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이 판단하실 일입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성숙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를 하면 좋죠.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신앙적으로 성숙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현실 이대로 하나님께 조용하게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도할까요’보다는 기도하는 순서도 모르겠고 뭘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겠거든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고 싶은 대로 해 보십시오. 그러다가 기도를 배우는 것입니다. 어디 가서 기도를 어떻게 하는 건지 순서를 잘 익혀서 그렇게 기도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뜻입니다. 하다가 잘못 되면 거기서 또 배우는 것입니다.

안 믿는 집안에 어떤 아버지가 교회를 나오기로 마음을 굳혔습니다. 어쩌나 반갑던지 식구들이 다 둘러앉아 아침을 먹으면서 “아버지도 이제 교회 가기로 했으니까 오늘 기도는 아버지가 하십시오” 하고 다 눈을 감아 버렸습니다. 이 아버지가 언제 기도하는 것을 본 적이 있어야지요. 한참 있다가 겨우 한마디 했습니다. “예수님, 만세!” 하고 말았습니다. 교회라곤 가 본 적이 없는 분에게 느닷없이 기도하라고 하니 뭐라고 그러겠어요? 잘못된 기도일까요 잘된 기도일까요? 잘된 기도죠. 형식도 없고 아무 것도 없어요. 그러나 진심은 담긴 기도입니다.

울릉도 사람이 남겼다는 유명한 기도가 있어요. 저도 몰랐는데, 울릉도에 감자가 많이 난다고 그러대요. 오징어만 나는 줄 알았는데 감자가 난다는 것을 아는 것은 이 얘기 때문입니다. 울릉도에서 어떤 분이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내 죄를 감자 꺾테기 빼기듯이 짹짹 빼주세요!”라고 했다더군요. 표현이 좀 거칠어도 실감나는 표현이고 참 좋은 표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너댓살쯤 되는 아이가 떡국을 앞에 놓고 식사기도를 했는데 눈을 감고 한참 있더니 눈을 딱 뜨고는 “이거 이름이 뭐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밥을, 아니 밥이 아닌데?” 그래서 눈을 뜨고 할머니께 이름을 물었겠죠. 떡국이라고 가르쳐 주니까 다시 기도하더라고요. 세상에 그 조그만 아이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겠습니까? 벌써 그 아이가 장가갈 때가 넘었을 것 같은데 지금도 그 아이 얼굴은 희미한데 그 장면은 선명해요.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선 그 모습이 제게는 참으로 감동적이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고 어떻게 기도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일단은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기도를 함으로써 기도를 배우고 그로 인해서 어떤 복을 받게 되는지를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기도를 하라고 하시면서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 될건지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기도할까요? 다른 것

보다 특별히 여기서 중요하게 표현되고 있는 말이 **‘강청함을 인하여’**입니다. 강청이 됩니까? 경상도 식으로 말하면 **‘맹강이죠. 때를 쓰는 거죠. 때를 쓰다시피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끈질기게 하라는 얘기죠.** 저는 이런 표현들을 자식이 부모에게 대하듯이 하는 기도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도대체 자식들이 부모 대하는 것은 막무가내입니다.

우리 집 아이가 어릴 때인데 여름에 수영장 한 번 데려 가기로 약속을 하고 날을 잡아 냐거든요. 한 며칠 기다리면 되는데 그 사이에 하도 말 안 듣고 야단 북새통을 쳐서 “말 안 듣고 자꾸 애 먹이면 수영장 취소다!” 일종의 공갈입니다. 그런데도 말썽을 자꾸 피워서 수영장 가기로 한 그 전날 취소라고 선언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큰 머슴이는 “아이고, 우리 아빠는 한 번 안된다 하면 그걸로 끝이다!” 그러고는 더 이상 얘기를 안 하는 겁니다. 되게 화가 나서 취소하긴 했지만 그래도 “아빠, 잘못했어요. 감시다!” 하면 못 이긴 척하고 가려고 마음은 먹고 있는데 다시는 얘길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작은 딸 아이는 아버지 말을 완전히 묵살하는 거죠. 그러면 안된다고 야단을 쳐도 말을 안 듣고, 그러면 수영장 못 간다 했음에도 아버지의 말을 무시하고 그래도 가차고 즐라대는데 둘 중에 어느 애가 더 이뻐했어요? 그래도 아빠 말 무시하고 대드는 놈이 더 이쁘다는 사실입니다.

아이를 거저 키우는 것 아닙니다. 아이 키우면서 아이가 어른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자격증 따서 아이 키우는 분 계십니까? 애가 애를 키우면서 배우고 어른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이 부모에게 떼쓰고 달려드는 것을 보면 앞뒤가 도대체 맞지도 않고, 말도 안되고, 일관성도 없고, 제 고집 뿐이고, 자기 생각만 하고 덤비는데 자식의 그런 모습이 그렇게 밍지 않더라는 사실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게 부자지간이라는 얘기죠. 우리가 하나님께 너무 점잖아서, 고상한 기도만 드릴 것이 아니라 자녀와 같은 자세로 하나님께 매어 달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앞뒤 따지지 않고 어린 아이의 심정으로 부르짖어 매어 달리는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기도가 응답될 때는 화끈하게 되어지고 점잖게 체면 차려 가면서 기도하는 분에게 기도의 응답은 여전히 그런 식이더라구요.

기도를 어떻게 잘할 거냐는 것도 사실은 중요합니다. 신앙적으로 성숙되면 잘 해야죠. 그러나 그렇게 되기까지 내 소원 그대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기도를 해서 될까,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해도 될까?” 따지기 전에 무조건 매달리라는 얘깁니다. 그 기도가 잘못되고 잘 되었고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응답이 다 됩니까? 열심히 했는데도 잘 안되던데요? 어떤 분들은 꼭 마술하듯이 기도응답을 받는다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저 길이 막 급한데요, 빨리 택시 한 대 보내주세요!” 길에 서서 기도했더니 택시 한 대가 왔더라. 진짜 응답일까요 아니면 우연의 일치일까요? 응답이예요?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응답인지 아닌지는 남이 몰라요, 본인이 압니다. 그렇게 믿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기도가 그렇게 응답이 되고 “뭘 어찌다가 그렇게 된 거지!” 하는 사람에게는 그런 식으로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 생전에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평생을 기도했는데 그것이 죽고 난 뒤에 이루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눈에 응답되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더러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그랬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필요한 것을 주신다고요? 본문의 제일 끝을 보십시오.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하십니다. “어? 하나님 난 성령달라고 구하진 않았는데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예수님의 답변은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무슨 뚱딴지 같은 얘깁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매듭짓고 있을까요? 몇 사람 예를 들어야 되겠네요. 누구의 기도 혹은 찬송인가 맞춰보십시오. ‘여호와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배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데도 여호와와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데도(사무엘상 1:6-7)’ 찬양치고 어때요? ‘여호와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신다’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실 수도 있고 살리실 수도 있다라는 고백입니다. 누가 이렇게 거창한 기도를 합니까? 사무엘의 엄마가 하고 있는 기도입니다. 아니 사무엘의 엄마가 그런 기도를 했어요? 변한 기도입니다. 처음엔 뭐라고 기도했어요? 한나의 처음 기도 내용이 됩니까? ‘아들 달라’였죠. ‘저 대적 브닌나가 나를 이

렇게 괴롭히는데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나에게 아들을 주세요.’ 울고불고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아들 주셨어요. 그 아들을 받아 들고 한나가 하는 기도를 보면 “하나님 내 소원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게 아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표현은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한나가 기도한 것은 아들 달라는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 하나 얻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를 깨달아 알아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까? 한나가 요구한 걸 주셨느냐는 말입니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준 것이 아니라는 얘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릴 때 아들을 주시면서 그것보다 더 큰 선물을 주셨습니다.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표현이 바로 이것입니다. 요구하는 그에게 응답하시면서 응답하실 때에는 요구한 그대로 주시는 것 아닙니다. 보너스가 따라오는데 이 보너스가 훨씬 더 큼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예를 더 들어봅시다. 다윗이 범죄하고 낳은 그 아들이 죽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 그 아이를 살려달라고 일주일 동안 금식하며 매달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안 들어 주셨어요? 그 아이가 죽었습니다. 신하들이 수군수군하니까 눈치를 채고 “죽었느냐?” 하니 신하들이 대답하기가 두려웠습니다. 이 아이가 죽어가는 것을 보고 저렇게 고통스러워 하던 그 임금에게 아이가 죽었다고 하면 혹시나 자살을 할지도 모르니까 대답을 못하고 있는데 안 알릴 도리가 없잖아요. “예, 죽었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툭툭 털고 일어나더니 목욕하고는 “야, 밥 먹자!” 그런 게 성경에 있습니까? 있습니다. 자식이 죽어갈 때 살려주십사고 금식하며 엎드려 기도하던 그가 아이가 죽었다는 말을 듣고는 툭툭 털고 일어나더니 밥 먹자는 얘데요.

다윗의 놀라운 신앙을 이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데려가기로 작정하셨으면 깨끗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는 뜻입니다. 우린 보통 머리로만 순종하죠. 하나님의 뜻이라면 따르겠습니다 하면서 징징 울잖아요. 다윗은 머리로만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왕지사 이 아들을 데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감정까지 깨끗이 순종합니다. 신하들이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혹시 우리 임금님이 살짝...? 아니 어떻게 된 일입니까라고 물었을 때 다윗의 대답은 “이 아이가 살아 있을 때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혹 살려 줄지 모르잖느냐. 그러나 이미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으니 하나님의 뜻이 확실했으니 내가 더 이상 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깨끗하게 순종하는 이 다윗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셨겠어요? 그렇게 눈물 뿌려가며 기도하는 그 기도를 모질게 안 들어주셨단 말이죠. 참으로 하나님은 모질다는 생각이 듭니까? 사무엘하를 읽다가 그 부분을 보시거든 조금 더 보십시오. 바로 그 뒤에 솔로몬의 출생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여디디아라는 이름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었다’는 뜻입니다. 금방 태어난 아이가 무슨 일로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받나요? 사실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하게 매달렸던 다윗의 기도를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음을 보고도 깨끗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다윗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다윗에게 쏟을 사랑을 솔로몬에게 더 풍성하게 쏟았더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도무지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아 보여도 우리가 한 기도는 결코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질 때에 더욱 풍성하게 부어주십니다. 다윗의 기도는 이루어진 것입니까? 작게 보면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도 크게 보면 더 크게 이루어진 겁니다. 우리가 잘 알지 못해서 틀린 기도를 하더라도 그 기도를 응답하실 때는 더 큰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말씀이 성령을 주시리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부모치고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개인적으로 필요한 것이라도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기뻐하시니까 달라는 것 주고 거기가 보너스로 더 보태주신다는 뜻입니다. 이런 기도를 왜 안 해요?

여러분, 살다 보면 답답하고 도저히 분에 못 이겨 “이래서야 어떻게 살겠느냐?”는 말이 입에서 절로 나오려 하거든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은 그럴 때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 기도가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하나님께 매어 달릴 때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신다는 뜻입니다. 성령을 주신다는 말씀은 조금 더 달리 설명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쉽게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기도하고 애쓸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 더 풍성한 것으로 주신다는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그것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옆집 아이가 내게 와서 아무리 때를 쓴다고 해도 못 줄건 절대로 못 주죠. 자기 자식이기 때문에 때로는 야단을 치면서도 또 한편으로 기분 좋은 것입니다. 말하자면 때를 쓰고 말도 안되는 것을 내 놓으라고 버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인정한다는 뜻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이미 성령이 와 있다고 그러죠. 성령님의 사역을 이야기 할 때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믿고 고백한다는 것은 이미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이 성령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사역은 성령께서 우리 속에 충만하게 오셔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가리켜서 흔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인치심으로 우리에게 온 이 성령은 여러분들을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성령을 주시리라라는 것은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우리와 함께 하시리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차원을 조금 뛰어 넘읍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 더 좋은 것, 더 큰 것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십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대신에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하나님께서 또 내게 무슨 복을 주시려고?” 입니다. 성경에는 가만히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집적거리서 복 준 사람이 많습니다. 좀 전에 말씀 드렸던 한나도 하나님이 집적거린 겁니다. 시비를 누가 걸었어요? 하나님이 건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공연히 아들을 안 주셨느냐 말입니다. 안 주니까 울고불고 하며 문제가 생겼잖아요. 시작은 대체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고생 많이 한 사람 중에 욥이 있습니다. 욥이 고난을 왜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쓸데없이 자랑해서 문제가 생겼잖아요. 욥은 자신에게 왜 그런 일이 생겼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엄청난 복을 주셨습니다.

압복강가에서 야곱이 밤새 씨름을 했다고 그러죠? 씨름이 왜 벌여졌겠습니까?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야곱이 씨름한 게 아닙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창세기 31:24)라고 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밤새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쥐어뜯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이 나타난 겁니다. 나타나서 자꾸 시비를 거는 거예요. 야곱이 지금 씨름이나 할 형편이 못 됩니다. 그런데 옆에 와서 자꾸 시비를 거는 거예요. 아마 성질이 나서 한판 붙었는지도 모르죠. 붙어 싸우다가 알아채는 거죠. 이거 보통 사람이 아니다. 그렇지 않다면 느닷없이 붙들고 왜 축복하라고 달려들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나신 거예요. 진짜로 이긴 것도 아니잖아요. 이기게 해 준 거죠. 그러면서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이름을 주시는 겁니다. 야곱이 언제 이름 같아달라고 그랬어요? 전혀 요구하지 않았음에도 그렇게 바꾸어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겁니다. 이런 걸 하나님께서 시비 걸었다고 표현해서 하나님께 죄송하지만 어떻게 본다면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또 나를 건드리십니까?” 혹시 어려움이 생기거든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왜 건드리십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해야 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더 큰 복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구하지 아니한, 우리가 육신의 것을 구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지 아니한 영적 축복까지 허락하시는 분입니다. 그런 점을 기억하시면 우리의 삶이 그렇게 힘들고 고달프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우리의 삶이 훨씬 더 복된 삶이 될 것입니다.